

# 호남권생물자원관 등 4개 생태기관 통폐합

■ 정부, 에너지·환경·교육분야 공공기관 기능 조정안 확정

전력소매 민간 개방·한전KDN 등 공기업 8곳 상장

해외 광구 자산 매각·광물자원공사 해외 개발 손떼

일반 국민이나 기업이 전기를 만들어 사고 팔 수 있도록 한국전력이 독점하고 있는 전력 판매(소매) 분야가 단계적으로 민간에 개방된다. 우량 공기업인 한전의 발전 자회사와 한국수력원자력 등 에너지 공기업 8곳의 증시 상장도 추진된다.

무리한 투자로 부실을 키운 한국석유공사와 가스공사는 해외광구 등의 자산을 매각하고, 한국광물자원공사는 해외자원 개발 사업에서 손을 떼는다.

정부는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이같은 내용의 '에너지·환경·교육 분야 공공기관 기능조정 방안'을 의결한 뒤 14일 열린 '2016 공공기관장 워크숍'에서 확정·

발표했다.

정부는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에 따라 지난해 사회간접자본(SOC)과 농림·수산, 문화·예술 분야 기능조정방안을 발표한 데 이어 이날 에너지 등 3개 분야 개편방안을 추가로 확정했다.

이번 조정에 따라 4개 공공기관(국립생태원·낙동강생물자원관·호남권생물자원관·멸종위기종복원센터)이 통폐합되고, 2개 기관(석탄공사·광물자원공사)의 구조조정이 추진된다. 29개 기관은 기능이 개편된다. 이 과정에서 공공기관 인력 3500명이 전향 및 재배치, 감축될 예정이다.

조정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공공부문의

독과점하고 있는 분야에서 민간 참여를 확대하기로 하고 우선 한전이 독점하고 있는 전력 판매(소매) 분야 규제를 완화한 뒤 단계적으로 민간에 개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태양광이나 에너지저장장치(ESS) 등 에너지분야 신사업자들이 전기를 생산한 뒤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

가스공사가 독점하고 있는 가스 도입·도매 분야도 민간직수입제도 활성화를 통해 시장 경쟁구도를 조성한 뒤 2025년부터 민간에 순차적으로 문을 열기로 했다.

정부는 공공기관 재무구조 개선과 투명성 제고 방안 중 하나로 남동발전 등 한전 발전자회사 5곳과 한국수력원자력, 한전 KDN, 가스기술공사 등 에너지 공공기관 8곳의 증시 상장을 추진한다. 지역난방공사는 내년 유상증자를 통해 재무구조 개선에 나선다. 다만 민영화에 대한 우려 등을 감안해 정부나 공공기관 보유 지분을 51% 이상 유지하고 20~30%만을 시장에

내놓는 혼합소유제 방식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공기업 부실 정리 및 비핵심업무 축소 차원에서 자본잠식 상태에 빠진 석탄공사는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감산과 인력 감축을 추진한다. 정부는 석탄과 연탄 수요를 줄이기 위해서 가격을 단계적으로 올리되 연탄이 서민용 연료인 점을 감안, 저소득층에게 지급하는 연탄쿠폰 지원금액을 함께 늘리기로 했다.

해외 발전소 건설 사업은 한전이 에너지 신산업과 대형발전 위주로, 발전5사는 화력·신재생 및 운영(O&M)을 주로 맡는 방식으로 특화분야를 정리했다.

환경분야에서는 오는 2018는 목포에 설립될 호남권생물자원관 등 4개 생태·생물 관련 공공기관을 가정 '생물다양성관리원'으로 통합하는 방안이, 교육분야에서는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고전번역기능을 고전번역원으로 이관해 유사·중복 기능을 정리하는 방안이 확정됐다. /연합뉴스

진도 관매도·신안 영산도 등 전남 11곳

관광공사 '휴가철 찾고 싶은 섬'에 선정

행정자치부와 한국관광공사가 뽑은 '휴가철 찾아가고 싶은 섬' 전국 33개 가운데 전남 11개 섬이 포함됐다. '휴가철 찾아가고 싶은 섬'은 섬 전문기, 관광전문기, 기자 등으로 구성된 심사단의 심사를 거쳐 테마에 맞춰 선정됐다.

한국관광공사는 '대한민국 구석구석' 누리집에 '2016년 휴가철 찾아가고 싶은 33섬' 코너를 개설해 집중 홍보할 계획이다. 테마별로 휴가철 체험전을 원하는 사람들이 조용하게 휴양할 수 있는 '힐-섬'에 목포 외달도, 신안 자은도, 영광 송이도, 완도 청산도, 진도 관매도 5곳이 선정됐다.

해마다 잘 알려지지 않아 섬 자원과 생태가 고스란히 보존돼 있는 '미지의-섬'에는 여수 연도, 고흥 애도, 신안 우이도, 신안 영산도 4곳이, 단체

자유회, 활기찬 가족여행 등으로 인기 좋은 '놀-섬'에는 신안 비금·도초 1곳, 섬만이 지닌 특별한 먹거리가 풍성한 '맛-섬'에는 완도 노화·보길도가 선정됐다.

배택휴 전남도 해양수산국장은 "휴가철 찾아가고 싶은 섬에 전남 섬이 최다 선정된 것은 전국적으로 그 가치를 인정받은 증거"라며 "섬을 찾는 여행자들이 최대한 안전하고 편안하게 섬 여행을 즐기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남도는 최근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2016 한국국제관광전'에서 최우수 홍보상과 함께 국제관광 문화 교류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아시아관광 마케팅 페스티벌 특별상을 수상했다. /윤현석기자chadol@kwangju.co.kr



6·15 16돌 "개성공단 재가동하라" 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 광주본부 주관으로 14일 광주시 동구 5.18민주화운동기록관 7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6·15남북공동선언 발표 16돌 광주기념식에서 참석자들이 "평화협정체결! 개성공단 재가동"을 외치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전남 저출산 극복 민간 네트워크 뚫다

행정·종교·언론·경제계 등 19개 단체 참여

14일 전남도청 서재필에서 전남도내 행정기관, 종교계, 언론계, 여성계, 경제단체 등 19개 기관·단체가 참여하는 '전남 저출산 극복 민·관 네트워크' 출범식을 갖고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

저출산 극복 민·관 네트워크는 이날 첫 회의에서 저출산 극복의 중요성을 전 사회적으로 공론화하고, 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다양한 홍보 캠페인 방안을 논의했다. 또 네트워크 참여단체의 활동

방향성을 제시하고, 역할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김태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이 '출산율 회복을 위한 우리의 역할' 주제로 강연했다.

참여 기관·단체들은 일과 가정 양립 실천과 남성육아 참여를 위한 근무 여건 개선, 가족 친화 교육 활성화, 양성 평등 육아문화 조성, 다양한 홍보 캠페인 등을 전개하기로 했다. /윤현석기자chadol@kwangju.co.kr

## 광주시 "동물보호소 직영 적극 검토"

4차례 공모 응모자 없고

동물단체 시설개선 요구

광주시가 열악한 시설과 관리로 지적을 받아온 광주 동물보호소 직영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기존 단체의 운영포기에 따른 위탁자 공모에 응모자조차 나오지 않는 상황에서 시설개선 등 동물단체의 요구를 수용한 것이다.

14일 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8월부터 오는 17일까지 동물보호소 새 위탁자 선정을

위한 공모를 진행 중이다.

지난달 내내 3차례에 걸친 공모에서는 신청자가 없었으며, 4차 공모에서도 아직 운영 희망자가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동물보호소는 2002년 이후 광주전남 수의사회, 동물의학연구소, 광주 수의사회, 전남대 동물병원, 전남대 산학협력단을 거쳐 지난 1월부터 한 동물단체가 수탁운영했다.

그러나 이 단체가 운영을 포기하면서 시는 새 운영자 물색에 나섰다.

연간 위탁운영비는 3억2000만원이지만

최근 5년간 63%가량이 인건비로 지출되면서 실제 동물관리에 들어가는 돈은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동물단체 등은 공간부족, 악취, 소음 등 문제를 지적하며 시에 해결을 촉구해왔다.

이날 전진숙(더민주·북구 4) 광주시의원과 녹색당 광주시당(준) 주관으로 광주시의회에서 열린 '광주동물보호소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라는 주제의 정책토론회에서 조정 사단법인 가치보듬 대표는 위탁운영 부작용을 없애 대안으로 자치단체 직영을 꼽았다. /최원필기자 cki@kwangju.co.kr

조 대표는 부지 이전, 상근직 소장 임명, 입소동물 의료지원 등 종합적인 대책도 제안했다.

시는 하반기 중 1억2000만원을 들여 고양이사, 소형견사, 격리실 등을 증축할 예정이지만 동물단체의 눈높이를 맞추기에 어려운 상황이다. 시는 보호소 직영이 핵심적이고 현실적인 요구인 것으로 판단하고 의견수렴에 나섰다.

시 관계자는 "보호소를 광역단체에서 직영하는 대구, 대전, 제주 등 사례를 참고하고 있다"며 "수탁을 희망하는 단체도 나타나지 않고 위탁운영에 따른 문제도 발생하는 상황인 만큼 직영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최원필기자 cki@kwangju.co.kr

"뿌리산업을 아시나요"

소성가공·금형 등 기초산업

15~18일 DJ센터서 전시회

국제뿌리산업전시회가 15~18일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다.

14일 광주시에서 따르면 이번 전시회는 제7회 광주 국제 금형·기계·자동화기전과 함께 열려 250개사 450개 부스에서 뿌리산업 기술과 제조설비 등을 전시한다.

해외 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에는 참가업체 사전조사를 통해 KOTRA 현지 무역관에서 발굴한 미국, 러시아, 스리랑카, 이라크, 중국, 일본, 인도 등 12개국 35개사가 참가할 예정이다.

17일에는 30개사가 참여하는 뿌리산업 채용박람회도 열려 현장 채용하고 가

상면접, 이력서·자기소개서 컨설팅, 취업정보 등도 제공한다.

포럼, 컨퍼런스, 유망차 표창, 포스터·UCC 공모전 시상 등 행사도 진행된다.

전시회는 지난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국내전시' 인증을 받았다.

시 관계자는 "뿌리기술·산업의 판로 개척과 수출 확대는 물론 아직은 생소하지만, 주변에 녹아있는 뿌리기술을 살릴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뿌리산업은 소성가공, 주조, 열처리, 표면처리, 용접, 금형 등 6대 기초 공정 산업이다. 자동차 1대 생산에 부품 수 기준 90%(2만2500개), 무게 기준 86%(1.36t)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원필기자 cki@kwangju.co.kr

의료광고심의필 제140611-중-59153호

**밝은광주안과**

**축 건물 천층 안과병원운영**

6/7층 라식센터  
4/5층 수술센터  
2/3층 외래진료

백내장 4無 수술  
無통증·無출혈·無봉합·無입원 수술가능  
백내장+노안+난시를 단한번의 수술로 해결

- 2년 연속 대한민국 의료서비스 대상
- 라식수술실 4곳 및 레이저 7대 보유
- 안구건조증 거의 없는 스마일 수술 시행
- '레인드롭' 노안시력 교정술 시행

1566·9988

신세계백화점 대극장 맞은편 노모양빌딩을 찾으세요

▲ 운영동 방면  
◀ 상무지구 방면

신세계백화점

**밝은광주안과**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필 제160406-중-81650호  
www.sejonghospi.com

**세종요양병원**  
광주광역시 동구 천변우로 453(금동 211-10)

진료내용  
**치료중점·어르신 중점진료**  
**인공신장실, 전문재활치료실**

세종요양병원은 수술 후 재활, 뇌졸중, 요양, 암, 치매, 인공신장실, 집중치료실 등  
요양 및 재활치료가 필요한 환자분을 위해 마음까지 치유하겠습니다.

**전문 재활치료실 운영**

운동/직업/통증치료실 운영 재활의학과 전문의 남두현 원장

진료분야 중추신경계  
-뇌신경계: 뇌출혈, 뇌경색, 외상성뇌손상, 뇌종양  
-척추신경계: 외상성척추손상, 척수장애, 척수염

근골격계  
-수술 후 회복 재활: 인공관절치환술, 골절, 인대손상  
-통증재활: 스포츠손상, 관절염, 근육손상, 근막통증후군

**세종요양병원**

장기요양·수술후 재활·암케어병동·치매·중증·집중치료실·인공신장실  
대표전화 (062)236-5200  
의사·한의사 협력 진료 병원

▲ 전남대병원에서 광주천변 방향

광주광역시 동구 천변우로 453(금동 211-10)